

시리아 유혈 진압 120명 사망

시위 희생자 장례 행렬 발포... 항의 의원 2명 사퇴

최근 5주간 300명 희생...국제사회 강력 비난

시리아군이 23일 시위 참가 희생자의 장례 행렬에 대해 발포하면서 최소 13명이 숨지는 등 시리아에서는 22일과 23일 이틀간 벌어진 대규모 시위로 최소 120명이 사망했다고 현지 인권단체가 밝혔다.

23일 사망자들은 수도 다마스쿠스 등지에서 전날인 22일 반정부 시위를 벌이다 군경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사람들의 장례식에 참석하거나 항의 시위를 벌이려고 거리에 나선 사람들이다. 현지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22일 금

요기도회를 맞아 전국적으로 벌어진 시위에서 112명이 숨지는 등 이틀간 120명 이상이 숨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폭압적 통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5주 이상 이어지면서 사망자만도 모두 300명 이상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시위가 이어지고 규모도 커지는 만큼 정부의 대응도 강화되면서 시리아 정부는 이날 북부도시 바나아스에서 인권단체 대표를 체포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의 유혈 진압에 항의해 의원 2명이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

다고 범아랍권 방송인 알-자지라가 보도했다.

이들 의원은 시위 중심지인 다라, 나세르 알-하리리와 카릴 알-라파이를 지역구로 한 무소속 의원들로, 지역구민을 보호할 수 없다는 무력감에서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리아 정부의 강경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프랑스와 독일, 러시아 등이 폭력 진압의 즉각 중단 및 철저한 조사, 정치개혁 확대를 요구하는 등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



부활절 연합예배

“2011 광주시기독교교단협의회 부활절 연합예배”가 24일 새벽 광주 남구 거주세교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도를 하며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중대분수령 맞은 한반도 정세

카터 ‘방북’ 우다웨이 ‘방한’... 대화 물꼬트나

남북 비핵화회담 개최 힘 실릴듯

한반도 정세가 중대 분수령을 맞고 있다.

4월 마지막 주에 들어서며 정세의 풍향에 큰 영향을 미칠 외교이벤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등장하면서 대화국면을 겨냥한 ‘새판짜기’가 가속화되는 흐름이다.

가장 주목할 이벤트는 26~28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의 방북이다. ‘엘더스’ 소속 전직 국가수반 3명을 대동한 카터 전대통령의 방북은 어느 방향으로 필지 모르는 불가측한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미국 정부의 뜻과는 무관한 사적 방문의 형식이지만 예기치 못한 파장을 몰고 올 가능성이 있다. 그가 남북간 ‘메신저’ 역할을 자임할 가능성에 외교가는 주목하고 있다.

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면담

한 뒤 서울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그 ‘내용’과 ‘강도’에 따라 현 국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외교가에서는 지난 1994년 카터 전대통령의 ‘평화 드라마’가 재연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카터 전 대통령은 제1차 핵위기가 고조되던 1994년 6월15일부터 3박4일간 개인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당시 김일성 주석과 회담한 뒤 같은 달 18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서울에 와 김영삼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카터 전 대통령은 김 주석의 남북 정상회담 제의를 전달했고 김 대통령이 이를 수락해 교착국면이 급반전됐다.

카터 전대통령이 방북길에 오르는 26일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

반도사무 특별대표는 서울로 온다. ‘남북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북미대화→6자회담’의 3단계안을 토대로 북한의 남북 비핵화 회담 제안을 전달할 가능성에 외교가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우리 정부는 “제안의 경로보다도 내용이 중요하다” (고위당국자)며 유연성있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우 대표가 북한의 메시지를 전달할 경우 남북 비핵화 회담 개최라는 ‘총론적 합의’가 도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우 대표의 방한은 대화국면의 흐름을 강하게 견인하면서 남북 비핵화 회담에 힘을 실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5월 중 비핵화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회담의 실질적 진전을 이끌 향후 관건은 중국이 전달할 북한의 ‘진정성 표시’ 수위다. 우리 정부가 요구하는 비핵화 행동목록에 대해 북한이 어느 정도 ‘회담’하느냐

에 따라 대화국면의 순조로운 진전 여부가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복잡한 국면 속에서 서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는 남북이 중의 외교전선도 긴박해지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고 우 대표가 방한하는 2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는 한미 양국의 차관보급 ‘2+2(외교·국방)’ 회의가 열린다. 양국의 현안과 중장기 과제를 포괄적으로 협의하는 전략대화의 형식이지만 3단계안으로 대변되는 6자회담 재개방안에 대한 공조방안이 조율될 전망이다.

북중간 협력의 흐름도 부쩍 강화되고 있다. 특히 김정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의 방중이 중요한 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25일 군 창건일 행사를 마친 뒤 이달말 또는 내달초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지도부와 상견례를 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연합뉴스

예멘 대통령 결국 물러난다

중재안 수용 ‘30일내 권력이양’ 동의

33년째 장기 집권 중인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이 결국 국민들의 퇴진 압박에 무릎을 꿇었다.

예멘 집권당인 국민의회당(GPC)은 살레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뼈대로 한 결프협력회의(GCC)의 중재안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AP, AFP통신이 24일 보도했다.

국민의회당 사무부총장인 술탄 알-바라카니는 “국민의회당은 GCC의 중재안을 전적으로 수용키로 했다”며 “GCC 외무장관들에게도 중재안 수용 방침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아라비아반도 6개국으로 구성된 GCC는 살레와 가족, 그리고 측근들에 대한 사후 처벌 면제 방침이 보장

된 상황에서 살레 대통령이 퇴진을 선언하고 30일 안에 부통령에게 권력을 이양하는 방식의 중재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통합정부가 살레 퇴진 이후 60일 안에 대통령선거를 실시해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GCC 중재안의 핵심 내용이다.

살레 퇴진 후 처벌 면제 조건 때문에 GCC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왔던 예멘 야권도 기본적으로 중재안에 대한 수용 방침을 밝혔다. 야권은 살레 대통령이 퇴진한 이후 통합정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예멘 집권당의 중재안 수용

방침을 환영하고 살레 대통령에게 평화적 권력이양 절차에 즉각 착수할 것을 촉구했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대화를 통해 권력이양의 시기와 형태가 확인되어야 하며, (권력이양) 즉각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해 온 청년단체들은 살레의 처벌 면제를 조건으로 한 중재안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어 시위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13년 임기 만료 예정인 살레 대통령은 반정부 시위가 격화하자 총선과 대통령선거를 치른 뒤 연내 평화적 권력이양을 통해 권좌에서 물러나겠다는 입장을 지난달 피력했다가 조기 퇴진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연합뉴스

“아이웨이웨이 석방하라” 홍콩서 시위

제4회 광주디자인비엔날레 공동 감독이자 중국의 저명한 설치 미술가·인권운동가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53)가 구금된 지 3주째 지난 가운데 홍콩에서 아이웨이웨이의 석방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

위가 발생했다. 홍콩 예술계 인사 1000여명은 23일 오후 신계지역 몽콕에서 집사추이까지 아이웨이웨이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거리행진에 나섰다

24일 보도했다. 홍콩의 예술가들은 아이웨이웨이의 구금을 비판하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다양한 분장을 한 채 거리행진을 벌였다. 이날 시위에는 센트럴과 성안 등 홍콩섬 중심가의 보도와 육교 벽면에 아이웨이웨이를 형상화한 관화 16점을 새겨 놓았다가 경찰 수사를 받은 젊은 예술가 친당저린도 참가했다. /연합뉴스

‘피습’ 한진텐진호 운항 재개

한진해운은 22일 소말리아 해역으로부터의 피랍을 모면한 컨테이너선 한진텐진호가 정상운항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한진해운 관계자는 “한진텐진호가 선원들이 구조된 직후인 21일 밤부터

최영환의 호위를 받으며 정상운항을 시작했다”며 “일부 스캐폴드 지연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다음 항구인 싱가포르까지 속력을 높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승조원들의 건강에

는 이상이 전혀 없으며, 검진이 필요하거나 요청하는 선원에 대해서는 항구에 입항한 뒤 조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체는 해적의 총기공격에 의한 경미한 피해 외에는 엔진과 조타시설, 화물 등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한진텐진호는 싱가포르를 거쳐 중국 상하이로 갈 예정이며, 부산으로 는 입항하지 않고 다시 유럽으로 향

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진텐진호(7만5천t급)에 대한 구출 작전과 관련, 군은 “상황으로 봤을 때 해적은 16명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상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통해 “작전 당시 해적은 없는 상황이었지만 정상적 인질구출작전을 펼쳐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창사 59주년을 축하합니다

광 양 시
시 장 이 성 웅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이사장 이 상 조